

◇폐국균종의 외과적 임상분석

박승일, 원준호, 이종국

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폐국균증[pulmonary aspergillosis]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곰팡이의 일종인 *Aspergillus fumigatus*에 의해 유발되는 기회 감염의 일종으로 알러지형[allergic type], 침습형[invasive type], 폐국균종[aspergillomatous type]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폐국균종은 결핵, 기관지 확장증, 만성 폐쇄성 폐질환, 폐농양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공동에서 발생하는 국소적 질환으로 객혈을 자주 유발시켜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어 왔다.

방법 : _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1989년 3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폐국균종으로 폐절제술을 시행한 41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 증상, 동반 질환, 술전 객혈의 정도, 폐국균종의 병소부위, 수술방법, 수술합병증 및 수술사망 등 임상 소견을 분석, 보고하고자 한다.

결과 : _ 환자의 남녀비는 남자 24명, 여자 17명이었으며, 나이는 19세에서 76세까지로 평균나이는 45.3 ± 24.5 세였다. 술전 주요증상은 객혈이 35례[85.3%], 만성적인 습성기침이 6례[14.7%]였다. 총 객혈량을 기준으로 1cc 이하를 혈담[blood-tinged], 1~30cc를 경도[mild], 30~600cc를 중등도[moderate], 600cc이상을 다량[massive]으로 구분할 때 혈담 3례, 경도 5례, 중등도 22례, 다량이 5례로 나타났다. 동반 질환으로는 폐결핵 병력이 있는 경우가 14례[34.1%], 기관지 확장증 8례[19.5%], 기관지 확장증과 폐결핵이 동반된 경우가 11례[26.8%], 만성 폐염 1례[2.4%], 규폐증 2례[4.8%], 승모판막 부전증 1례[2.4%]가 있었다. 병소부위는 우상엽 19례[46.3%], 우중엽 2례[4.8%], 우하엽 4례[9.7%], 좌상엽 16례[39.0%]였다. 수술은 폐엽절제술이 24례[58.5%], 폐구역 절제술이 3례[7.3%], 전폐 절제술이 2례[4.8%], 흉막 및 전폐 절제술이 1례[2.4%], 폐구역 절제술 및 흉곽성형술이 1례[2.4%], 폐엽절제술 및 흉곽성형술 2례[4.8%], 공동절개술 2례[4.8%], 공동절개술 및 흉곽성형술 6례[14.6%]를 시행하였다. 수술 결과로는 15례[36.5%]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는데, 창상감염이 5례[33.3%], 술후 과다출혈 4례[26.6%], 지속적인 공기누출 5례[33.3%], 기관지 흉막루를 동반한 농흉이 1례[6.0%]에서 발생하였다. 술후 사망은 1례[2.4%]가 있었으며, 사망원인은 술후 2일째 발생한 급작스런 호흡 부전에 의한 사망이었다.

결론 : _ 폐국균종의 경우 다른 폐질환에 비해 각혈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성이 높고 폐기능의 악화가 우려되며 폐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합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외과적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, 특히 본 교실에서는 술전 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심한 늑막 유착이 있어 폐절제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동절개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였으며 단기간의 추적 결과 폐절제술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.